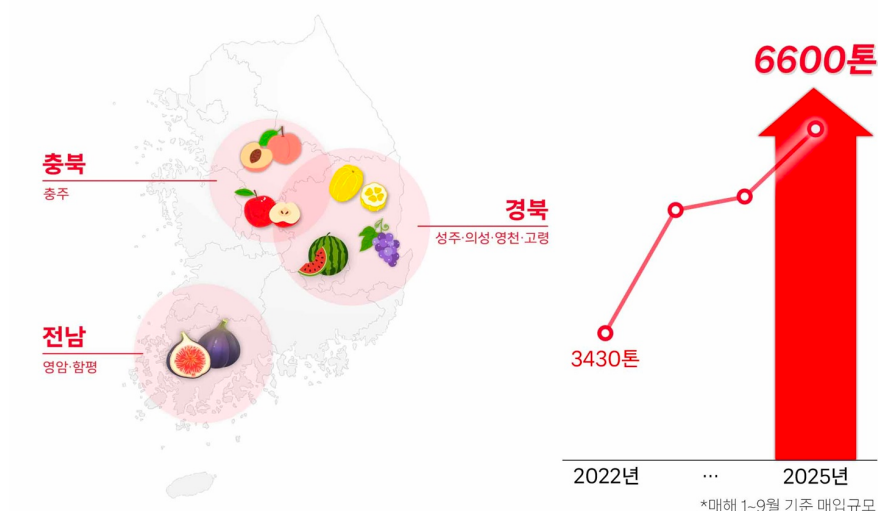


[보도자료] 쿠팡, 전남 함평 등 인구감소위기 지역 과일 6600톤 직매입 ‘역대 최대’ 지역 농가 살린다

2025. 10. 23.

쿠팡, 인구 감소지역 과일 직매입량 최대



쿠팡, 전남 함평 등 인구감소위기 지역 과일 6600톤 직매입 ‘역대 최대’ 지역 농가 살린다

- 쿠팡, 인구감소위기 등 7개 지역 과일 매입량 6600톤 돌파 지난해 동기 대비 20% ↑
- 지방 농민들 “수수료 없는 쿠팡의 대량 직매입으로 농가 숨통 전국 판매 2배 ↑”
- 이상기후·재배 면적감소·제한된 판로 ‘3중고’ 딛고..”쿠팡 새벽배송으로 위기극복”

2025. 10. 23. 서울 - 쿠팡이 올 들어 주요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한 과일이 6600톤을 넘어섰다. 폭염·폭우 등 기후변화를 비롯해 경기침체 위기에 처한 지역 농가들에서 대규모로 과일을 사들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르고 있다. 특히 쿠팡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자치단체들과 긴밀한 협업으로 지방 농가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 지방 농가와 협업 강화해 매입량 신기록 연말까지 매입량 7000톤 전망

쿠팡은 올해 1~9월 전남(영암 함평)과 충북 충주, 경북(성주 의성 영천 고령) 등 7개 지역에서 사들인 과일이 6600톤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난 수치다. 이들 지역들은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또는 인구소멸위험 진입지역(한국고용정보원)에 선정된 지자체들로, 쿠팡은 사과·참외·자두·수박·딸기 등 30여가지 과일을 이들 지역에서 매입해 전국 새벽배송을 확대해왔다.

쿠팡은 인구 위기를 겪는 이 지역들과 과거부터 업무협약(MOU)을 맺거나 협업을 강화해 과일 매입을 확대해왔다. 7개 지역에서 쿠팡의 과일 매입량은 2022년 3430톤, 2023년 5610톤, 지난해 5870톤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미 올 9월 기준 지난해 기록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연말까지 7000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과일 매입규모가 커진 이유는 쿠팡의 물류 인프라가 도서산간·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지역 농가의 과일을 매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올 들어 농가 500곳과 협력하는 고령군(수박), 의성군(사과), 영암군 등과 판로 확대 업무협

약(MOU)을 맺거나 협업을 강화하면서 매입이 크게 늘었다.

경북 고령에서 과일 매입 규모는 49톤(올 1~9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배, 전남 영암 함평도 55톤으로 6배 이상 뛰었다. 무화과를 주로 거래한 이들 지역은 지중해를 닮은 서남단 기후 특성으로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지만 온라인 판로 확대는 초기단계에 있다. 이밖에 경북 영천도 같은 기간 대비 약 90% 늘었다. 영천은 포도·샤인머스켓·멜론 등이 400톤 이상, 의성 복숭아·자두는 600여톤 팔렸다. 참외로 유명한 성주(3200여톤), 충주 사과·복숭아(2300여톤) 등도 매입 규모가 늘어났다.

◇”쿠팡의 직매입 확대로 침체된 지방농가 살아나..작업 부담 줄이고 유통 안정성 찾아”



전남 함평에 위치한 '함평농부' 채상희 대표가 무화과 상자를 들고 있다.

쿠팡이 과일 매입을 크게 늘린 지방 농가들은 “도매 유통 구조 등에 따라 정산이 늦거나 납품가가 오르는 불안정한 거래 관행과 달리, 쿠팡은 별도 수수료 없이 직거래로 대량으로 과일을 사들여 약속된 날짜에 약속한 정산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9.2%로, 10년 전인 2013년(45%)보다 4.2% 포인트 높아졌다. 이런 상황과 반대로 쿠팡은 직거래로 농가 과일을 대규모 물량을 사들이고 새벽배송과 마케팅, 고객 응대 등을 전담해 이들의 유통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 매출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 함평의 무화과 농가 '함평농부'는 지난해 쿠팡을 통해 첫 온라인 직거래를 시작했다. 20년간 무화과를 재배해 온 채상희 대표는 “쿠팡의 직매입 확대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2배로 늘면서 침체됐던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확량이 충분해도 납품처가 제한돼 최상품이 헐값에 팔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쿠팡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며 “이를 계기로 무화과 하우스를 추가 증설해 생산량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 고령군 우곡수박은 농가 수익이 낮은 기존 포전(밭 단위) 거래 대신 쿠팡을 통해 직거래를 처음 도입, 안정적 매출 확보가 가능해졌다. 신혜경 고령군청 농업정책과 유통가공팀장은 “고령군 수박 재배 면적은 최근 5년간 약 30% 감소하며 수박 농가 명맥이 단절될 위기에 놓였는데, 쿠팡과의 직거래와 직매입을 계기로 공선출하회도 결성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충주에선 ‘수안보 복숭아 공선출하회’가 60여 농가와 협력, 2022년부터 매 여름마다 쿠팡과 복숭아 직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쿠팡 로켓프레시는 냉장 배송차가 농가에서 선별한 상품을 직접 픽업, 전국에 새벽배송하고 있어 고령의 농업종사자의 작업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신승창 회장은 “다른 대형 유통시장 등과 비교해 쿠팡의 납품단가 등이 합리적이라서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며 “올해 냉해로 수확량이 줄었는데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쿠팡의 직매입 규모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쿠팡의 과일 및 농산물의 직매입 확대에 가격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농가가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생산 농가는 쿠팡의 직매입 확대 정책 덕분에 걱정을 덜 수 있으며, 농가들은 가격 안정성 확보로 다음 농사도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밖에 전북 익산·경북 안동과 봉화, 충청 논산 등 전국 여러 지역들의 농축산물 매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주요 사과 산지에서 생산된 ‘못난이 사과’ 약 200톤을 대량 매입해 신규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등 지역 농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농가가 쿠팡을 통해 성장할수록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를 발굴해 함께 성장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